



“원효연구 35년... ‘禪의 향기’ 담았어요”

는 것이었지요.” 10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으니,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들어간 법학도로서의 학부생활이 순탄할 수가 없었다. 결국 전공을 바꿔 불교학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결혼조차도 부질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독립된 길을 가야겠다’고 시작한 원효 연구는 쉽지 않은



원효스님의 ‘금강삼매경론’을 읽고 있는 은정희 교수.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주석서 낸 은정희 교수

35년 전 조계사에서 ‘금강삼매경’ 강의 듣고, 한평생을 원효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은정희 교수(61·서울교대 도덕교육과)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일지사) 역주본> 9권의 산고 끝에 내놓았다. 이 책은 지난 9년 출간돼 ‘해방 이후 최고의 번역서’라는 평가를 받으며 불교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대승기신론소·별기> 못지 않은 노작이다. 이 두 권과 함께 내년에 출간할 계획으로 주석 작업을 하고 있는 ‘이장의(二障義)’가 나오면 원효의 주요 저작에 대한 은 교수의 역주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었다. 민족문화추진회와 태고전연구소에서 한문을 수학해 번역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불교용어 이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는 불교용어가 암호(?)였다고 털어놓는다. 그렇다고 불교학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여러 사람과 반복해 공

불교용어 운동으로 깨쳐 복잡한 내용 도표로 요약 ‘이장의’ 내년 출간 계획

부하는 운동이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존의 원효 저서들의 문제점인 오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펴낸 두 권의 책 모두 5~6번 운동을 마친 결과물입니다.”

오랜 불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20여 권의 원효 저서들이 학문적으로 축적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금도 은 교수가 ‘대승기신론’과 ‘금강삼매경론’의 역주를 마쳤지만 동료학자나 제자들과 함께 ‘구사론(具舍論)’ ‘조론(雜論)’ 등의 운동하고 성철선사상연구원 등 불교학회

를 찾아다니며 공부하는 것도 그 이유다. 은 교수의 역주본에서 돋보이는 점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정리한 도해다. <대승기신론소·별기>의 도해가 그랬듯이 <금강삼매경론>의 도해 역시 원효 사상으로 다가가는 일은 한결 수월하게 해준다. “처음 ‘금강삼매경론’을 대할 때 솔직한 한 구절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원효의 저작을 읽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쉽고 실낱 ‘금강삼매경론’의 구조를 도해로 만들었습니다.”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에 해석을 붙인 주석서.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주석서 차원을 뛰어넘어 원효 스님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고 은 교수는 설명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효 스님이 늘 강조한 ‘자리와 이타’이다. 이 글에는 본문에는 없지만 옆면에 머물지 않고 중생과 함께 한다는 부주어반(不住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은 교수는 이 책에서 다른 역자와의 번역상 차이를

밝히는 세밀한 주석을 달아 신뢰도를 높였다. 불교학자를 천직으로 택한 은 교수이지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깨달음인 이상 수행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번역하는 일에 매달리다보니 따로 수행(참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군요. 생활 속에서 매순간 조용동시(照用同時·본성을 비춤과 본성의 작용을 동시에 한다)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조용동시, 즉 수행(참선)과 공부(번역)는 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번역에 매달리다 보면 따로 수행할 시간이 없지만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나를 비추보는 것이 수행의 본래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은 교수는 되묻는다. 은 교수는 원효의 저술을 모두 번역한 뒤 원효·지눌 스님 등의 한국불교사상사 한국 고승의 유식학을 시대별로 정리해 보겠다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값 2만5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불교교리 일목요연 정리

주선 편역 ‘해탈의 즐거움’

부처님의 가르침은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새긴다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절실하게 다가 올 것이다. 일상 속에서 수 없이 일어나는 번민들이 부처님 가르침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욕심과 집착에 불과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도서출판 증명에서 펴낸 <해탈의 즐거움>(주선 편역)은 바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이다. 특히 불교를 잘 모르는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설했는지, <법화경>은 어떤 경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책 속에서 그 동안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생활의 진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님 생애’를 시작으로, ‘근본교리’, <법화경> 28품의 핵심부분을 요약해 실었다. 그리고 마지막 4권에서는 ‘법화경 현증영험록’을 실어 이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값 7천8백원. 김중근 기자

왜곡된 불교이해 바로잡기

‘주자의 선불교...’



운영해 지음

주자(1130~1200)는 성리학의 중심 축인 존재론, 심성론, 수양론의 측면에서 불교를 비판했다. 불교가 일상을 떠나 초월만을 지향한다는 것, 즉 불교는 세상의 일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개인의

위안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자의 불교비판에 대한 연구서 <주자의 선불교 비판 연구>(민족사)가 나왔다.

이 책은 크게 ‘주자와 중국불교’, ‘주자의 불교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자와 중국불교’는 주자 이전까지 중국사람들이 불교를 비판한 역사와 성격에 관한 예비적 고찰과정이다. 이어 주자가 불교를 배우게 되는 과정, 불교를 비판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가 불교를 평가하는 태도와 이해의 수준 등도 적고 있다. ‘주자의 불교비판’은 주자가 불교에 대해 사상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행한 비판에 대한 논구다. 글쓴이는 주자의 불교비판을 이론·실천·사회적 기능으로 나눠 탐구한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몽산스님 간화선이 고려에 온 까닭은



‘몽산덕이와 고려 후기...’ 인경스님 저음

남송과 원대에 활약한 몽산덕이의 선사상을 살피고, 고려말 간화선 태동에 미친 그의 영향을 고찰한 <몽산덕이와 고려 후기 선사상 연구>(불일)가 출간됐다.

몽산덕이(蒙山德異·1231~1308)의 <육조단경>은 국내에서 51회나 간행될 정도로 중국 선사상의 여류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고 있으며, 그가 편집한 덕이본 <육조단경> 역시 국내 강원에서 교재로 삼을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몽산덕이의 선사상이 중국 선사상에 어떻게 형성·전개·융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다시 이것이 고려 후기 선사상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심도 있게 규명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몽산덕이가 새롭게 편집한 덕이본 단경은 기존의 다른 단경들과는 달리 <경덕전등록> 등 송대 선사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오조법어인→대혜종고→무문해개로 이어지는 중국의 전통적인 간화선 계승·전개하고 있다. 또한 반야와 정도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덕이본 단경은 고려 태고보우의 무주화론과 인가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글쓴이 인경 스님은 조계산 송광사에서 출가하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몽산덕이 선사상연구’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값 2만원.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부처와 중생, 삶에 대한 사랑 노래

무산스님 시집 ‘그리운 님에게’



8년만에 내놓은 주옥같은 시 48편 구도의 열기 승화

<한국역대 고승의 다시>를 통해 한국 불교 다담선의 맥을 밝혀 화제를 모았던 무산 스님(경주 해회선원)이 시집 <그리운 님에게>(명상)를 내놓았다.

부처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노래한 이번 작품은 <초곡>, <반야>에 이어 8년만에 내놓은 세 번째 시집이다. 수록된 시는 모두 48편. 글쓴이인 무산스님과 ‘그대 님 다화(茶花)’가 주제로 시 전체에 등장한다.

“순간이 영원으로 / 이어질 수 없다면야 / 화석으로 굳어질진 /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 그대 님 다화의 / 눈빛 하나로 / 마음놓고 만년 살리라.” <천만년 함께 사는 님> 중에서. 무산 스님이 ‘그리운 님’은 시를 읽는 이에 따라 때로는 부처로, 때로는 중생으로, 때로는 이성의 연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시인의 삶에 내재돼 있는 구도자로서의 고뇌와 한 중생으로서의 고뇌가 상충에 따라 달리 표현된 것일 수도 있겠다.

부처에 대한 글쓴이의 사랑은 점차 중생에 대한 사랑으로 전이된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며, 시간도 공간도 또한 사랑임을 나아가 삶 자체가 사랑임을, 세월의 무게가 늘수록 깨닫게 되는 까닭이리라. 값 5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이론 집게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공양
3	일반승 수행일기	강 욱 구	동쪽나라
4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택 낙 안	지혜의 나무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6	운명을 뛰어넘는 길	원 황 불	광
7	산세 개편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정 세 채	모 색
8	배하지 면담록	태에드기든	탐 구 사
9	단박에 운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판
10	부처님 말씀	성 열	현 암 사

도서 안내:(02)737-0695

E-mail: pubms@hollan.net pubms@netsoc.com

110-300 서울 중구 관동동 192-13 성지 B/D 503호 명상 TEL. 733-4271(F) FAX. 733-4279

명상 시선 11

그리운 님에게

한 출가 수행자의 고뇌와 그리움, 그리고 중생과 부처에 대한 끝없는 사랑

삶은 사랑과 함께 시작해서 죽음과 함께 끝난다. 죽음이 올 때 사랑의 에너지는 마지막 한탄 승부를 거른다. 그것은 확 타오르는 불꽃이 된다. 그 섬광은 그대를 다음 생각으로 이끌고 수레바퀴는 다시돌기 시작한다. 시집 전체에 등장하는 ‘그대님 다화(茶花)’는 진정한 누구인가.

그대 님 다화
홍조 편 수행승이
노을처럼 타고 있다.
밀희의 시공(時空) 사이
입술마저 타들어간 다화
당신의 숨결 하나로
나 절신
넋을 놓고 천년 살리라.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면야
화석으로 굳어질진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그대 님 다화의
눈빛 하나로
마음놓고 만년 살리라.
(‘천만년 함께 가는 님, 전문’)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
신국판 4×6판/66쪽
값 5,000원

다담선(茶湛禪)을 알고 다도(茶道)를 하는가

“다담선의 선맥(禪脈)을 밝힌다”

다담선이란 차를 마시면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고려의 대각 국사 의천 스님이 9백여 년 전 우리 나라에 들여왔다

일천 년 동안 맥을 이어 내려온 26분의 역대 조·스님들께서 남겨 놓으신 다담선시를 이번에 설선당 무산 스님이 십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책으로 세상에 내놓는다 하니 참으로 큰 불사(佛事) 기쁨입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백암사 고불총림 방장 서용

종문(宗門)과 세간에 있어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남기신 다도와 선의 진수인 다시(茶詩)를 한 곳에 모아 방대한 책으로 발간하게 됨은 종문의 대불사(大佛事)라 할 수 없습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통도사 영축총림 방장 월하

- 고승들이 중생에 전하는 첫잔 속 깨달음의 향기들 - 조선일보
- 우리나라 다담선의 맥을 처음으로 정리해낸 보고서이자 다담선의 부흥을 알리는 선언문 - 연합뉴스
- 끊어졌던 다담선의 선맥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책 - 국제신문

“
고려의 대각 국사로부터
조선 말기 범해 선사까지
”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
신국판 4×6판/272쪽
값 15,000원